

‘ESG 경영’ 힘 주는 LG에너지솔루션… 전담 위원회 설립

김종현 사장·사외이사 4명 구성
위원장에 신미남 사외이사 선임
ESG경영 계획하고 성과 등 분석

LG에너지솔루션이 ESG 위원회를 신설하며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을 본격화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고, 이사회 내에 ESG 위원회를 신설하기로 결의했다고 15일 밝혔다.

◆ESG 위원회 설립 통해 지속가능경영 강화

ESG 위원회는 ESG 경영 관련 최고 심의 기구로 환경, 안전, 사회적 책임, 고객가치, 주주가치, 지배구조 등 ESG 분야의 기본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중장기 목표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사외이사 전원(신미남, 여미숙, 안덕근, 한승수 이사)과 사내이사인 CEO 김종현 사장 등 5인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신미남 사외이사가 선임됐다.

ESG 위원회는 ESG 경영 활동에 대한 계획 및 성과 등을 분석하고, ESG와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오창공장.

관련해 중대한 리스크 발생 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반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수시로 개최된다.

◆내부거래위원회 신설해 경영 투명성 강화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이사회에서 ‘내부거래위원회’,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결의했다.

내부거래위원회는 내부거래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공정거

래법상 사익편취 규제 대상 거래 ▲상법상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기타 법령상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내부거래 등을 심의한다.

내부거래위원회는 사외이사 3인(여미숙, 안덕근, 한승수 이사)과 사내이사인 CFO 이창실 전무 등 총 4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여미숙 사외이사가 선임됐다. 이밖에 이사회는 내부 통제와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 선임 절차에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립하기로 결의했다.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 전원(한승수, 신미남, 여미숙, 안덕근 이사)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에는 한승수 사외이사가 선임됐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는 사외이사 2인(안덕근, 신미남 이사)과 기타비상무이사 LG화학 신학철 부회장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에는 안덕근 사외이사가 선임됐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전 ESG 영역에 걸쳐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지속가능경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외이사 4명 신규 선임…절반은 여성 사외이사로 이사회 다양성 확대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4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신미남 전(前) 케이옥션 대표, 여미숙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한승수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를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신미남 전케이옥션대표는 부산퓨얼셀 BU 사장 및 맥킨지 컨설턴트를 역임한 신재생 에너지 업계 전문가로 에너지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기술과 산업 트렌드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미숙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서울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법률 전문가로 컴플라이언스 분야에서 심도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글로벌 통상 분야 전문가로 글로벌 경영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승수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회계·재무 분야 전문가로 관련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LG에너지솔루션의 재무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은 사외이사 4명 중 절반인 2명(신미남, 여미숙 이사)을 여성 사외이사로 선임하며 이사회 다양성을 강화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과 전문성을 지닌 여성 전문가들의 이사회 참여를 확대해 이사회 다양성 및 기업 가치를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신세계인터, 택배포장에 비닐 99% 없앤다

모든 포장재·부자재 친환경 종이 충격 완충재도 종이 소재로 변경
100% 재활용 가능… 친환경 박차

신세계인터내셔널이 제품 배송에 사용되는 포장재와 부자재를 종이로 전환한다.

신세계인터내셔널은 15일 “택배 포장에 비닐을 과격적으로 감축하면서 친환경 경영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다”고 밝혔다.

최근 비대면 소비가 급증하면서 포장과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닐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자, 신세계인터내셔널은 재활용이 어려운 비닐 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환경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포장 자재 혁신에 나섰다.

배송에 사용되는 포장 박스를 비롯해 모든 포장재와 부자재는 산림관리 친환



신세계인터내셔널이 제품 배송에 사용되던 비닐 포장재와 부자재를 100% 재활용 가능한 종이 소재로 전환한다. /신세계인터내셔널

경 인증 소재로 생산한 종이를 사용한다. 상품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넣는 충격 완충재, 비닐 에어캡과 소포장에 사용하는 비닐 파우치를 전부 종이 소재로 변경한다. 기존 비닐 박스 테이프 또한 종이 테이프로 바꾼다. 모든 종이 소

재는 100% 재활용이 가능해 별도의 처리 없이 종이류로 쉽게 분리 배출할 수 있다.

다만, 비와 눈 등에 젖을 우려가 있는 의류 상품에 한해 소포장 폴리백(비닐 포장백)을 최소한으로 사용한다. 향후 폴리백은 생분해가 가능한 친환경 재생 소재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16일부터 공식 온라인몰 에스아이빌리지를 통해 발송되는 모든 자사 브랜드 제품에 도입되며, 안전 포장봉투의 경우 기존 재고 소진 후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단, 신세계인터내셔널 물류센터를 거치지 않고 입점 업체에서 직접 발송하는 제품은 제외된다.

신세계인터내셔널은 이번 종이 포장재 전환을 통해 연간 약 50t 이상의 비닐 폐기물을 감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경총, 상장협·코스닥협과 기업 ESG 지원

정책 수립 지원 등 협업체계 구축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국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코스닥 상장사들과 함께 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기준 마련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경총은 1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함께 ‘기업 ESG 정책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연기금 등 자산운용사와 글로벌 투자자의 ESG 검증 요구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상장기업들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경제단체 간 정책 대응과 기업 지원에 필요한 포괄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를 통해 3개 단체는 기업주도 ESG 자율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정책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ESG 평가기준 마련과 관련해 정부에 의견을 개진하고 기업의 자발적 실사 지원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공동과제를 발굴해 수행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

이번 협약은 일부 기업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이슈 제기와 그에 따른 경영 혼선을 최소화하면서 ESG 자율경영 동력을 결집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단체 간 ESG 관련 업무협약은 이번이 국내 처음이다. 앞서 경총은 국내 4대그룹을 포함해 총 96개 계열사의 18개 그룹 사장이 대표가 돼 구성된 ‘ESG 경영위원회’를 지난 4월 말 출범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책임투자원칙이 정착되면서, 연기금 등 자산운용사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ESG 검증 요구는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며 “주요 선진국들은 ESG 경영 공시와 함께 인권과 환경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실사를 의무화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등 책임경영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ESG 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일방적인 평가기준과 확장성 높은 과도한 요구로 기업들이 겪게 될 혼선을 최소화하고 자율경영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3개 단체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중견기업 10곳 중 8곳 “ESG 경영 필요성 공감”

중견련, 회원사 대상 설문
업무·비용 부담 등 ‘걸림돌’

중견기업 10곳 중 8곳은 ESG경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ESG경영 도입을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 등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는 의견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ESG 경영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조사’를 실시해 15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78.2%는 ESG경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기업들은 ▲고객사 및 소비자 요구 대응(42.6%) ▲ESG 규제 대응(34.7%) 등을 ESG 경영 추진 동기 1·2

순위로 꼽았다. 또 ▲기업 이미지 제고(12.9%) ▲투자자 요구 등 자금 조달(4.9%) 등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16.8%는 자사의 ESG 경영 준비 수준이 ‘높다’고 응답했다. ‘보통’은 43.6%, ‘낮다’는 39.6%였다.

이런 가운데 중견기업들은 ‘업무 및 비용 증가(47.5%)’를 ESG 경영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았다. ‘

모호한 ESG 개념 및 범위(19.8%), ‘기관별 상이한 평가 방식(17.8%), ‘ESG 관련 규제 강화(12.9%)’ 등도 주요 걸림돌이었다.

ESG 경영 확산을 위해선 가장 많은 37.6%의 응답자가 세제 혜택 등 제도적

인센티브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혼란과 기업 부담을 해소하려면 공신력 있는 ESG 평가·공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32.7%로 높았다.

▲ESG 경영 관련 교육·컨설팅 지원(20.8%) ▲ESG 경영 관련 정보 전달 체계 구축(8.9%) 등 원활한 ESG 경영 도입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중견련 반원의 상근부회장은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로서 ESG 경영 확산을 위해서는 규제 패키지 대상이 아닌 기업 체질 강화의 필수 요건으로서 ESG 경영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의 선제적 투자를 뒷받침할 정책적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보령제약, ESG 교육 콘텐츠 자체 개발

보령제약이 ESG 경영에 본격적인 속도를 내고 있다.

보령제약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사고를 배양하기 위해 ESG 교육 콘텐츠를 자체 개발해 전 임직원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총 4부로 구성된 이번 과정은 ‘ESG 확산과 환경경영 전략’이라는 주제 아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과제, 사례, 전략’ 등 ESG 경영에 관한 다양한 내용

이 수록됐다.

보령제약은 이번 콘텐츠 제작을 위해 환경경영 전문가인 포스코경영연구원 안윤기 상무를 감사로 초빙했다.

현재 보령제약 전 임직원은 사내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사이버 아카데미’를 통해 지난 1일부터 해당 필수 교육을 수강하고 있으며, 이번 달부터는 일반 인도 수강할 수 있도록 국내 온라인 교육 위탁기관 12곳을 통해 보급될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